

# 류승완 “군함도 왜곡 없어”

### ‘스크린 몰아주기’ 관련 “스크린 제한 기준 마련돼야”

류승완(44) 감독은 “관객은 군함도에 관한 영화를 처음 봤어요. 강제 징용에 관한 영화도 처음이죠. 저도 마흔이 돼서야 이 역사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감독이 ‘베테랑’(2015) 이후 2년 만에 내놓은 새 영화 ‘군함도’는 개봉 직후 논란에 휩싸였다.

개봉 첫 날(7월28일) 영화는 전체 80%에 해당하는 2027개관(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을 장악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극 중 친일과 묘사 등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함도 관련 내용을 취재하는 제작 단계부터 일본 우익 단체의 압박을 받았다. ‘군함도’가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기대치가 높은 작품이었고, 시대가 가진 특수성이 있는 작품이라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감독은 이 모든 논란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 그는 ‘스크린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영화가 차지할 수 있는 스크린에 제한을 두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배년 반복되는 이 일을 내년에 또 이어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해명은 사실 내가 해야 할 게 아니라 극장 책임자들이 해야 한다. 극장들이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다. 류 감독은 “군함도에 왜곡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출 시퀀스를 예로 들면,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나 그들이 탈출하는 방식 등 모든 디테일을 역사학자, 군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고증한 뒤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역사 왜곡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영화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이 3일 오전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부분은 역시 친일파 묘사 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역사를 다루면서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의 조선인 착취를 묘사하기보다는 친일파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구분을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게 이 논란의 쟁점이었다. 류 감독은 “단순히 군함도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조선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연출하는 것, 일본놈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영화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조선을 얼마나 교묘하게 착취했는지 보여줍니다. 초반 40분이 다 그런 장면이잖아요. 다만 일본 배우들은 우리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고(일본인 역할 배우들은 대부분 실제 일본 배우들이다), 친일파를 연기하는 분들이 관객에게 익숙한 배우들이라서 더 잘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이 영화를 다시 만들라고 해도 일본인과 친일파에 관한 묘사는 이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는 “이제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군함도를 알았고 일제의 강제 징용 역사에 대해 조금 알았을 거라고 본다”며 “이런 논란을 통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창작인지 알고, 진짜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좋게 생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류승완 답지 않은 작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가 ‘군함도’에서 너무 상업적인 선택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류 감독은 “난 상업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서 “그런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들어왔다. 더 시기가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영화를 만드는 기조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최소한 내가 볼 땐 변하지 않았다. ‘군함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뉴시스

# 박병호, 빅리그 콜업 분위기 ‘솔솔’

### 후반기 타율 0.324·5홈런 12타점·출루율 0.378... 지역매체 “미네소타, 기회 줄 것”

마이너리그에 머물고 있는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후반기 들어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타격감을 되찾고 있다.

현재에서도 박병호의 빅리그 콜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꿈의 무대 재입성까지 머지않은 분위기다.

미네소타 산하 트리플A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뛰고 있는 박병호는 올 시즌 8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3 9홈런 41타점 OPS 0.754를 기록 중이다.

개막 로스쿨에 들지 못하면서 출루 마이너리그에 머물고 있는 박병호는 올 시즌 전반기 61경기에서 타율 0.243(280타수 69안타) 4홈런 29타점에 그쳤다.

빅리그 콜업을 위해서는 마이너리그에서의 활약이 가장 중요했지만, 시즌 초반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한 뒤 5월 극심한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6월 들어서는 27경기 동안 장기간 홈런포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시즌 초반만 해도 콜업 1순위로 거론됐지만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약 없는 마이너리그 생활이 이어졌다.

그런 박병호가 7월 들어 서서히 타격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울스타 휴식이 이후에는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병호는 후반기 20경기에서 타율



0.324(74타수 24안타) 5홈런 12타점과 함께 출루율 0.378 장타율 0.568을 기록 중이다.

전반기 61경기에서 4개에 그쳤던 홈런포는 후반기 벌써 5개를 날렸다.

4경기 1개 팔로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거포 본능을 깨웠다.

박병호가 마이너리그에서 연일 맹타를 휘두르자 냉소적이었던 현지 언론도 태도를 달리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네소타 구단 전문 매체 ‘트윈스 데일리’는 산하 구단 7월 최고 타자 6명을 뽑으면서 로체스터에 있는 박병호와 미치 가버를 포함했다.

매체는 ‘박병호는 알찬 한 달을 보냈다. 시즌 초 부상으로 주춤했지만 6월 중순부터 서서히 살아나 7월에는 한국에서 그를 전설로 만들었던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미네소타는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때까지 좋은 타격을 로체스터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구단 수뇌부나 코칭스태프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콜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민근기자

# 방탄소년단 소속사, ‘힙합 지니어스’ 찾는다

그들 ‘방탄소년단’을 발굴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힙합 가수를 찾는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힙 잇 오디션 5(Hit It Audition 5)’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힙합 지니어스(Hip Hop Genius)’를 찾아라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오디션은 랩, 노래, 댄스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우승자 1명(팀)에게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미국과 서울에서 열리는 예선을 거

쳐 ‘볼 10’을 선발해 결선을 치른다. 빅히트 소속 프로듀서인 피독(Pidogg)과 슬로우 래빗(Slow Rabbit), 슈프림 보이(SUPREME BOY),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가 심사에 참여한다.

오디션 참가는 오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27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예선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뉴시스



# “손흥민이 돌아왔다”

### EPL 토트넘, SNS를 통해 팀 훈련 합류 사진 공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 원정 경기에서 팔 부상을 당한 손흥민(26·토트넘)이 팀 훈련에 참가했다.

토트넘은 4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손흥민의 훈련 장면이 담긴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돌아왔다. 선수들간 접촉이 없고 훈련 강도가 약한 훈련 그룹에서 천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공개한 사진 속 손흥민은 골대를 임했던 오른쪽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움직이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손흥민 특유의 밝은 모습도 여전했다.

또한 슈팅을 할 때도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오른발을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손흥민의 빠른 회복은 오는 31일 이란과 아시아최종예선 9차전을 앞두고 있는 신태용에게도 희소식이다.

다만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초반 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13일(한국 시간) 뉴캐슬과 개막전을 치른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